2005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험번호 : (　　)　　성　명 : (　　)

○　　○　　○　　○

(2)교시	국　어	(31)문항 (80)점	작성시간 (150)분	감독관 확인	㊞

○ 문답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문답지 모든 면의 상단 해당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쓰시오.
○ 답안을 수정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고친 내용을 쓰시오.
○ 다음의 경우에는 문답지 전체나 해당 문항의 답안을 채점하지 않습니다.
- 문답지 상단의 점선 아래에 개인 정보가 노출된 문답지 전체
- 연필로 작성된 문항
-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된 문항

※ 각 문항에 대한 답은 문답지의 답란에 쓰되, 주어진 조건에 맞게 쓰시오.

1. 다음 독서 일기를 읽은 교사가 학생에게 더 지도해야 할 읽기 방법을 두 가지 선정하여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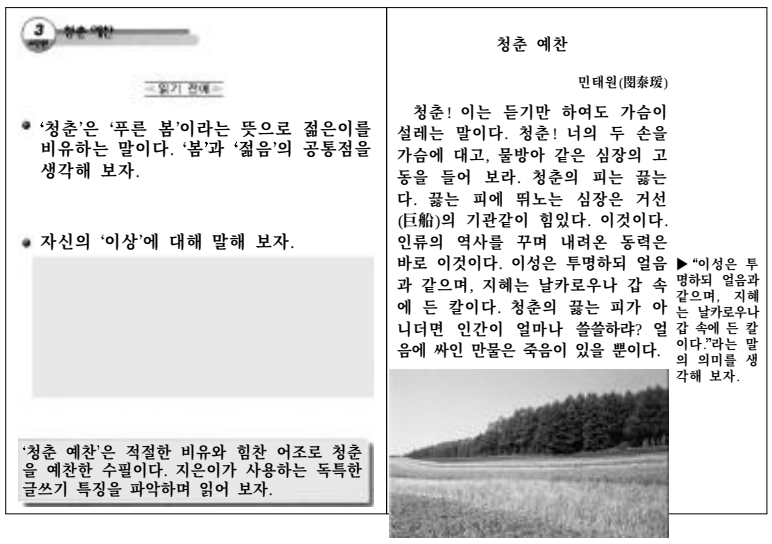
> ○월 ○일 날씨 맑음
>
> 며칠 전 국어 선생님께서 독서 방법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시면서 설명문을 읽을 때는 필요한 내용을 찾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책을 적절히 선택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다. 오늘 과학 선생님께서 케플러 법칙을 설명한 글을 읽고 요약해 오라는 과제를 내 주셨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배운 것을 적용해 봐야지 생각하고 천문학에 관한 책을 시립 도서관에서 빌렸다. 그런데 필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그 두꺼운 책에서 필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케플러 법칙을 어떻게 찾지? 그리고 열심히 읽기는 했는데 필요한 부분을 찾기 어려웠고, 빨리 읽다 보니 책의 대략적인 내용도 알기 어려웠다.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있을 듯한데 부분적인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건>
- 지도 내용에 한 가지 이상의 활동 요소를 포함하여 쓸 것.
- 지도 내용을 선정한 근거는 학생 일기에서 찾을 것.

•

•

2. 다음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일부이다. 학생의 능동적 읽기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한 네 가지 전략적 장치들이 능동적 읽기에 각각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3점)


3 청춘 예찬

<읽기 전에>

- '청춘'은 '푸른 봄'이라는 뜻으로 젊은이를 비유하는 말이다. '봄'과 '젊음'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
- 자신의 '이상'에 대해 말해 보자.

'청춘 예찬'은 적절한 비유와 힘찬 어조로 청춘을 예찬한 수필이다. 지은이가 사용하는 독특한 글쓰기 특징을 파악하며 읽어 보자.

청춘 예찬

민태원(閔泰瑗)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싸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

•

•

•

3. 다음은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선정한 제재이다.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예측하여 아래 표의 빈 곳을 채우시오. (3점)

> (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문간에 두르는 새끼줄을 금줄, 혹은 인줄, 검줄이라고 부른다. 금줄은 잡인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아기가 보고 싶은 친인척일지라도 삼칠일(21일)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전래된 풍습 대다수가 급격한 쇠퇴·소멸의 길을 걸었는데 금줄 문화만은 아직도 시골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오늘날까지 버티게 만들었을까? 금줄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기에 그처럼 오래도록 한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 왔을까?
>
> (나) 금줄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글자 그대로 '금(禁)'은 금지의 뜻을 지닌다는 것이다. 갓 난아기 집에 늘어뜨린 금줄은 외인의 출입을 금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당산제나 마을굿을 위하여 동네 입구나 제관의 집, 당집에 쳐 두었던 금줄도 잡신의 침입을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시각은 금줄을 '금(禁)'이 아니라 '검'으로 보는 견해이다. 국학자 이능화는 금줄을 '감줄'로 간주하면서, '감'은 검·곰·한과 같은 고대어와 상통하는 신성어라고 추정하였다. 민속학자 손진태도 금줄 문화를 '검줄 문화'라고 불렀다. 이 경우 대표적인 예가 장승, 탑, 당산나무 등에 감아 둔 금줄이다.

(다) 이와 같이 금줄은 잡신의 출입을 금지하고 신성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특한 의례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왼새끼를 꼬아 걸쳐 놓는 행위를 엄숙한 의례로 수용하고 발전시켰던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지금까지도 금줄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중심 내용 파악	(가) (나) (다) 금줄 문화가 지속되는 이유
⬇	
글쓴이가 사용한 단서	• • '첫째', '두 번째', '이와 같이' 등의 표지(標識)
⬇	
내용 전개 방식	•

【4　6】 (가)는 상호 평가 수업을 계획한 교수·학습 과정안이고, (나)는 이 수업을 받은 후에 한 학생이 작성한 자기 평가서이다. 이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8점]

(가) 학습 목표: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쓸 수 있다.

계획	• 상호 평가 기준표 작성 • 상호 평가 절차에 대한 계획
준비	• 상호 평가 활동 절차에 대한 안내 • 상호 평가 활동에서 유의할 점 안내 • 상호 평가 활동의 예시 및 시범
활동	• 돌려 읽기 활동의 순회 지도 • 평가 결과 쓰기에 대한 순회 지도
정리	• 상호 평가 활동 결과 정리에 대한 지도 • 고쳐 쓰기의 목표 세우기에 대한 안내

(나) 포트폴리오의 '자기 평가서'

지금까지 쓴 글을 되새기며 일주일에 글 한 편씩을 쓰자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지만,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한 장 한 장 쓴 글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글을 쓰는 일이 점점 즐거워진다. 포트폴리오에는 수업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단계별 쓰기 결과를 모아 놓는다. 수업 시간에 배운 방법대로 써 본 글도 모은다. 쓰기를 계획한 것, 내용을 떠올린 것, 아이디어를 메모한 것, 초고를 쓴 것, 친구들에게 평가를 받은 것, 고쳐 쓴 것 모두를 모아 놓는다. 그렇게 하니까 글이 만들어져 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배운 것을 알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다. 또 평소에 쓴 글도 모아 둔다. 그렇게 모은 자료를 보면 글을 쓰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싶을 때도 있다.

지난 국어 시간에는 ㉡친구들과 글을 돌려 읽고 평가해 주는 활동을 했는데, 고치면 좋은 점을 서로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글로 써 주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내 글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 글을 쓸 때는 뭘 고쳐야 더 나은 글이 될지 잘 몰랐는데 친구들이 평가해 준 걸 보니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 글 말고 다른 친구의 글을 읽으니까 재미도 있었다. 친구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소개한 글을 읽었는데 목각 인형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선생님께 평가를 받지 않고 친구들한테 평가를 받게 되어서 마음이 좀 편안했다. 글을 못 쓰는 것 같아 국어 선생님께 보여드리기가 창피했는데, 글을 서로 같이 읽으니까 안 그랬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국어 선생님과 협의하기를 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에 담긴 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신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뭐라고 하실까? 못 썼다고 꾸중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협의 내용도 포트폴리오에 정리하라고 하시니 메모를 잘 해야 할 것 같다.

4. 오 교사는 (가)의 수업을 위해 '상호 평가 기준표'를 만들고자 한다. 빈 곳에 적절한 평가 기준을 쓰시오. (3점)

평가 범주	평가 기준
내용의 통일성	• 제목은 내용을 잘 드러내어 주는가? • •
형식의 응집성	• •
표현의 적절성	• 다양한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 •

수험번호 : (　　)　　성　명 : (　　)

○　　○　　○　　○

5. ㉠과 ㉡은 모두 학생의 쓰기 활동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를 참고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3점)

㉠에 포함해야 할 주요 요소	• 포트폴리오의 목차와 목표 • •
㉠이 교사의 쓰기 평가에 유용한 점	• 쓰기 태도에 대한 평가 가능 • •
㉡이 학생의 쓰기 활동에 유용한 점	• 친구의 글을 읽고 정보의 공유 가능 • •

6. 오 교사가 (나)의 학생과 협의 활동을 통하여 쓰기 태도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질문 전략을 한 가지만 택하여, 그 장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점)

질문 전략	
질문의 예	
전략의 장점	

【7　8】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총 4점]

나는 종이와 펜을 붙잡고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전에 포착하려고 한다. 아이디어는 단명하다. 봄날 잠깐 꽃을 피우는 연령초처럼, 땡볕 아래 놓인 아이스크림 한 접시처럼, 혹은 두 살배기 아이의 주의력처럼. 기회의 창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점점 가물거린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내 글쓰기의 흐름을 잘라버리는 다른 많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운이 좋으면 가까스로 한두 문장 건진다.

나의 내면에 도사린 비판적 자아는 글쓰기 과정을 통제하려고 한다. 내 왼쪽 어깨에 걸쳐앉은 이 검열관은 덜떨어진 글을 가차 없이 꼬집는다. 처음 휘갈겨 쓴 한두 문장의 글을 꼬치꼬치 따져보고 내 귀에 속삭인다. "첫 문장이 이게 뭐야? 이걸 글이라고 썼어?"

나의 내면에서 능동적 글쓰기를 부축이는 창조적 자아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황홀해 하며, 언어의 맛에 도취한다. 창조적 자아는 다섯 살배기 아이 같아서 신기하고 신나는 일이 많다. 아이디어를 떠올린 창조적 자아는 그걸 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안절부절못한다. 창조적 자아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건 칭찬을 듣거나 인정받길 원한다는 것이다.

검열관의 지적을 받으면, 창작자는 검열에 걸린 문장을 직직 그어버리고 다시 쓸려고 한다. 검열관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문장, 제대로 된 문장, 뭔가 울림이 있는 문장을 쓸려고 고심한다.

마침내 창조적인 다섯 살배기는 첫 문장을 새로 써서 검열관의 인정을 받길 바라며 눈치를 살핀다. 검열관은 새 문장을 뜯어보고 푹푹 한숨을 내쉬며 이런 식으로 말한다. "젠장, 기껏 썼다는 게 겨우 이거란 말이지……." 결국 맥이 빠져버린 창조적 자아는 검열관의 엄중한 통제를 받으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거나 펜을 내동댕이친다.

7.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2점)

8. 글쓴이가 겪고 있는 글쓰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전략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점)

【9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가)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과 태도는 곧 자신의 말과 태도에 대한 반응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은 상대방의 새로운 대응을 이끄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화자는 대화 상황이나 주제에 맞게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협력하여 말을 해야 하고, 청자는 관련되는 정보와 단서들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에서는 말을 주고받는 목적뿐만 아니라,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도 중요하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서로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려는 태도, 즉 공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수험번호 : (　　)　　성　명 : (　　)

○　　○　　○　　○

의사소통은 사람과 사람 간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체계이다. 의사소통의 역동성은 독립성과 연관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 사이의 긴장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자신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을 추구하려는 이 두 가지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상대방과 최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나) 그리 간 후의 안부 몰라 ᄒᆞ노라. 엇디들 인는다. 셔울 각별ᄒᆞᆫ 긔별 업고, 도적은 믈러가니 깃거ᄒᆞ노라. 나도 무ᄉᆞ이 인노라. 다시곰 됴히 잇거라.

- 선조(宣祖), '삼옹주(三翁主)'

(다) 정석: 야-! 창문 닫아!
영규: "좀 춥지 않니?"라고 말하면 안 되니? 말을 해도 꼭…….

9. (가)의 의사소통 원리에 따라 (나)의 특성을 설명하고, (나)를 전화 담화로 전환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말하기의 세 가지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 (4점)

<보　기>

① 어법에 맞게 말하라.
② 쉽고 간결하게 말하라.
③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라.
④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하라.
⑤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말하라.
⑥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⑦ 알맞은 어휘를 정확하게 발음하여 말하라.

• (나)의 글쓰기 특성

• 말하기의 방법과 효과

10. (다)의 대화를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원리를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점)

11. 다음은 "중세 국어 어휘의 쓰임을 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자료이다. '어느'를 셋으로 분류하고 그 근거를 쓰시오. (2점)

① 어느 뉘 請ᄒᆞ니 (용비어천가 18)
② 어느ᄅᆞᆯ 닐온 正法眼고 (금강경삼가해 2:68)
③ 어늬ᅀᅡ ᄆᆞᆺ 됴ᄒᆞ니ᄋᆡᆺ가 (석보상절 6:35)
④ 國人 ᄡᅳ들 어느 다 ᄉᆞᆯᄫᆞ리 (용비어천가 118)
⑤ 國王ᄋᆞᆫ 오쇼셔 龍王ᄋᆞᆫ 겨쇼셔 이 두 말ᄋᆞᆯ 어늘 從ᄒᆞ시려뇨 (월인석보 7:26)
⑥ 菩薩이 어느 나라해 ᄂᆞ리시게 ᄒᆞ려뇨 (월인석보 2:10)
⑦ 현 날인ᄃᆞᆯ 迷惑 어느 플리 (월인천강지곡 74)

자료 번호	분류의 근거

【12　13】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7점]

① ᄉᆡ미 기픈 므른 ᄀᆞᄆᆞ래 아니 그츨ᄊᆡ (용비어천가 2, 1447년)
② 젹은 아ᄒᆡᄅᆞᆯ ᄀᆞᆯᄋᆞ치되 (소학언해 5, 1587년)
③ 더ᄫᆞᆫ 몰애 모매 븐ᄂᆞᆫ 苦왜라 (석보상절 13, 1447년)
④ 모래와 ᄒᆞᆱ 섯근 거슬 (가례언해 7, 1632년)
⑤ 三賊이 좇ᄌᆞᆸ거늘 (용비어천가 36, 1447년)
⑥ 梵音이 깁고 微妙ᄒᆞ샤 (석보상절 13, 1447년)
⑦ 고ᄌᆞᆯ 받ᄌᆞᄫᆞ시니 (월인천강지곡 6, 1449년)
⑧ 어마님 사라겨ᅀᅳᆷ 저긔 (월인석보 23, 1459년)
⑨ 됴ᄒᆞ시며 됴ᄒᆞ실쎠 大雄世尊이여 (법화경언해 5, 1463년)
⑩ 내 보아져 ᄒᆞᄂᆞ다 ᄉᆞᆯᄫᅡ쎠 (석보상절 6, 1447년)

12. 다음은 ①　⑦에서 알 수 있는 국어사적 지식을 정리한 표이다. 빈 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4점)

구분	국어사적 지식	구체적인 내용
①, ②	표기법의 변화	
③, ④	음가(音價)의 변화	
③, ⑤, ⑥, ⑦	팔종성법(八終聲法)	

13. ⑤　⑩에 쓰인 경어법을 유형별로 설명하시오. (3점)

14. 다음 <보기>는 보조사 '-은/는'의 특성을 학습하기 위해 모은 자료이다. 자료 번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지도 내용을 쓰시오. (2점)

<보　기>

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야!
② 철수가 국어는 잘 하지만 영어는 좀 못해.
③ 뭐니 뭐니 해도 꽃은 장미가 최고야.
④ 옛날 이야기를 해 주마. *아주 먼 옛날에 나무꾼은 살았어.
* 비문 표시

자료 번호	지도 내용
①, ②	
③	
④	

15. 정 교사는 (가)와 같은 학생의 질문을 받았다. (나)를 이용하여 학교 문법 체계 내에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시오. (3점)

(가) 학생: 보어는 문장의 주성분이고 필수적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필수적 부사어는 아래의 예에서처럼 밑줄 친 성분을 생략하면 비문이 되므로 문장의 주성분이 되니 보어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 철수는 영희를 친구로 여겼다. → *철수는 영희를 여겼다.
㉡ 피망은 고추와 다르다. → *피망은 다르다.
* 비문 표시

(나) ① 이 고생도 오늘로 끝이야.
② 영호가 철호와 여행을 떠났다.

【16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점]

(가) ○월 ○일 날씨 맑음

오늘은 할머니께 또 꾸중을 들어 속상했다. 며칠 전 할머니께선 "너 핵교 가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난 할머니께서 '학교'를 '핵교'라고 잘못 발음하시는 것 같아서 국어 선생님께 배운 대로 표준 발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할머니께선 평생 이렇게 말하며 살아왔어도 불편한 일이 없었다며 핀잔을 주시고, 내 말은 들은 체도 하지 않으셨다. 괜히 말 꺼냈다 싶어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할머니께선 밥상에서 "에미야, 오늘 저녁엔 괴기 반찬 좀 준비하렴."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

다. 이 말씀을 듣고서 난 또 다시 할머니께 '에미', '괴기'가 표준 발음에 어긋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할머니께선 오히려 어른들 일에 쓸데없이 참견한다고 내게 꾸중만 하시는 것이었다. 할머니께선 왜 이상하게 발음하시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내일 선생님께 여쭤 봐야겠다.

(나) ①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② 영수는 함께 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③ 친구와 같이 해돋이를 보러 동해안에 갔다.

16. (가)의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김 교사는 할머니의 발음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고자 한다. 할머니의 발음 현상과 같은 용례 다섯 개만 들고 설명해야 할 내용을 쓰시오. (2점)

관련 지식	'ㅣ' 모음 역행 동화와 표준 발음
용례	
설명 내용	• 'ㅣ' 모음 역행 동화: • 표준 발음과의 관계:

17. 김 교사는 "서로 다른 음운 현상 사이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세우고, (가)와 (나)를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수업에서 지도해야 할 학습 내용을 쓰시오. (2점)

18. 다음의 밑줄 친 보조적 연결어미 '-게'는 학교 문법에서 부사형 전성어미로도 인정되고 있다. '-게'를 부사형 전성어미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점)

①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② 서쪽 하늘에 저녁놀이 화려하게 물들었다.

【19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7점]

(가) 내마음의 어딘듯 한편에 꽃업는 강물이 흐르내
도처오르는 아츰날빗이 빤질한 은결을 도도내
가슴엔듯 눈엔듯 또피ㅅ줄엔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잇는곳
내마음의 어딘듯 한편에 꽃업는 강물이 흐르내
- 김영랑, '동백닙에빗나는마음'(1930)

(나) 내마음의 어딘듯 한편에 끗없는
강물이 흐르네
도처오르는 아침날빗이 빤질한
은결을 도도네
가슴엔듯 눈엔듯 또 피ㅅ줄엔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잇는곳
내마음의 어딘듯 한편에 끗없는
강물이 흐르네
-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1935)

(다) 「오-매 단풍들것네」
장ㅅ광에 골불은 감닢 날러오아
누이는 놀란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들것네」
- 김영랑, '오-매 단풍들것네'(1949)에서

19. (나)는 (가)를 개작(改作)하여 제목과 형식이 바뀌었다. 시인이 이 같은 개작을 통해서 얻고자 한 효과를 독자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4점)

• 제목을 바꾸어서 얻고자 한 효과

• 형식을 바꾸어서 얻고자 한 효과

20. (나)와 (다)의 시어 · 화자 · 대상 표현 방식을 비교하시오. (3점)

•

•

•

•

【21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가) 善化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 '서동요'

(나) 善化公主니믄
놈 그스지 얼어두고
맛둥바올
바미 몰 안고 가다 (양주동 해독)

(다) 善化公主니리믄
놈 그슥 어러 두고
薯童 방올
바매 알흘 안고 가다 (김완진 해독)

(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믈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 '청산별곡' 제3장

21. 다음은 고대 국어의 고유 명사 표기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학생들에게 (가) (다)의 제재를 활용하여 향찰(鄕札)의 표기 원칙을 지도하는 교수 · 학습 과정안의 일부이다. 빈 곳에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2점)

단계	지도 내용
단계 1	(가)와 (나)를 대조하며 ㉠에서 훈차(訓借) 자와 음차(音借) 자를 구별해 보게 한다. • 뜻만 빌려 쓴 글자의 예 : 他 密 嫁 置 • 음만 빌려 쓴 글자의 예 : 只 良 古
단계 2	(가)의 ㉠에 한정하여 표기 방법을 선택하는 원칙을 추론하게 한다. • •
단계 3	추론한 원칙에 따라 ㉡을 분석하게 하되,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다)를 비교하며 설명하게 한다. • '卯乙'의 '卯'은 원전에서 판독이 명료하지 않다. (나)는 '卯乙=卯乙'로 판독하여 음차 표기로 보고 '몰'로 음독한 것이며, (다)는 '卯乙=卵乙'로 판독하여 훈차 표기로 보고 '알흘'로 훈독한 것이다. • 추론한 원칙을 따르지 않은 해독을 수용하는 것은 지금 전하는 향찰 표기 자료가 그 원칙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22. (라)의 ㉢을 중세 국어 문법과 현대 국어 문법에 따라 각각 분석할 때, 그 발화 주체와 행위 주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2점)

• 중세 국어 문법에 따라 분석할 때

• 현대 국어 문법에 따라 분석할 때

23. <보기>에 제시된 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라)의 '청산별곡' 전부를 가창(歌唱)한 방식을 추론하고, ㉣의 가창 효과를 설명하시오. (2점)

<보　기>
• 전체 텍스트는 (라)와 동일한 형식을 갖춘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장의 화자는 동일 화자가 아니고, 각 장에 표현된 화자의 정서는 서로 대립하거나 모순을 이루기도 한다.

【24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7점]

(가) "한머님 병환이 이렇듯 위중하신데 너희는 태평 치고 잠을 잔단 말이냐."

우리가 건넌방에 들어서면 그는 다짜고짜로 야단을 쳤다. 그중에도 가장 나이 어리고 만만한 내가 이 꾸중받이가 되었다. 인정사정 없는 그의 태도가 불쾌는 하였지만 도덕적 우월을 앗긴 우리는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었다.

"다들 뭐란 말이냐. 나는 한 달이나 밤을 새웠다. 며칠들이나 된다고."

졸음 오는 눈을 비비는 우리를 보고 그는 자랑스럽게 또 이런 꾸중도 하였다.

'놀라운 효성을 부리는 게 도무지 우리 야단칠 밑천을 장만하는 게로구나.'

나는 속으로 꿀꺽꿀꺽하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중략…)

할머니는 가끔 몸부림을 치면서 일으켜달라고 야단을 쳤다. 이럴 때에 중모(仲母)는 거벽스럽게도* 염불을 모시었다.

"어머니 어머니,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그는 몸부림하는 할머니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타일렀다.

"저를 따라 염불을 뫼셔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 일어날란다."

"에그, 웨 그리셔요. 가만히 계셔요, 제발 덕분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할머니는 마지못하여 중모를 따라 두어 번 입술을 달싹달싹하더니, 또 얼굴을 찡그리며 애원하는 어조로

"인제 고만 뫼시고 날 좀 일으켜다고. 내 인제 고만 가랴다."(…중략…)

나까지 아우르면 아버지 슬하에 아들만 넷이나 되건마는 지금 육십 노경에 받드는 어느 아들, 어느 며느리 하나가 없다. 집안이 넉넉지 못한 탓으로 사방에 흩어져서 제 입 풀칠하기에 눈코를 못 뜨는 까닭이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쓴물만 입안에 돌 뿐이다.

- 현진건, '할머니의 죽음'에서

* 거벽(巨擘)스럽다 : 보기에 사람됨이 억척스럽고 묵직한 데가 있다.

(나) 왜 아내의 내객들이 아내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이 풀 수 없는 의문인 것같이 왜 아내는 나에게 돈을 놓고 가나 하는 것도 역시 나에게는 똑같이 풀 수 없는 의문이었다. 내 비록 아내가 내게 돈을 놓고 가는 것이 싫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고것이 내 손가락에 닿는 순간에서부터 고 벙어리 주둥이에서 자취를 감추기까지의 하잘것없는 짧은 촉감이 좋았달 뿐이지 그 이상 아무 기쁨도 없다.

어느 날 나는 고 벙어리를 변소에 갖다 넣어버렸다. 그때 벙어리 속에는 몇 푼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고 은화들이 꽤 들어 있었다. (…중략…)

나는 이불을 획 제쳐버리고 일어나서 장지를 열고 아내 방으로 비칠비칠 달려갔던 것이다. 내게는 거의 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다. 나는 아내 이불 위에 엎드러지면서 바지 포켓 속에서 그 돈 5원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준 것을 간신히 기억할 뿐이다.

이튿날 잠이 깨었을 때 나는 내 아내 방 아내 이불 속에 있었다. 이것이 이 33번지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내가 아내 방에서 잔 맨 처음이었다.

해가 들창에 훨씬 높았는데 아내는 이미 외출하고 벌써 내 곁에 있지는 않다.

- 이상, '날개'에서

24. <보기>의 대화를 들은 최 교사는 학생들의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를 지도해 주고자 한다. (가)를 근거로 하여 지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2점)

<보　기>

영수 : 중모, 그러니까 둘째 어머니 말야, 아무래도 좀 위선적인 것 같지? 할머니 병환을 돌본다고 그걸로 친척들한테 잘난 체나 하고, 또 아픈 할머니를 보고 불경이나 따라 외라고나 하고……. 이 작품은 아마도 효도를 한다면서 실은 제 잇속만 챙기는 인간들의 이중적 성격을 비판하는 것 같아.

영희 : 응, 나도 네 말에는 공감하는 면이 있어. 하지만 둘째 어머니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달라. 친척들 모두 객지로 나갔는데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니? 할머니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도 그게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잖아? 오히려 할머니를 꽤나 생각하는 듯한 손자의 이중적 성격이 더 문제인 듯해. 손자가 벚꽃 놀이 간다고 하던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품이 끝나잖아.

<조건>

- '중모'의 행위의 의미와 사회 세태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것.

25. (나) 작품은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가 (나)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2점)

26. 박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는 사실주의, (나)는 모더니즘 경향의 소설이라고 언급한 뒤, (가)와는 구별되는 (나)의 모더니즘 소설적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박 교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인물 묘사 · 플롯 · 배경의 세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3점)

•

•

•

【27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8점]

(가) 가마귀 검다 ᄒᆞ고 白鷺ㅣ야 웃지 마라
　　것치 거믄들 속조차 거믈소냐
　　아마도 것 희고 속 검을슨 너ᄲᅮᆫ인가 ᄒᆞ노라
　　- 『진본 청구영언』

(나) 가마귀 ᄡᅡ호ᄂᆞᆫ 골에 白鷺ㅣ야 가지 마라
　　셩낸 가마귀 흰빗출 새올셰라
　　淸江에 잇것 시슨 몸을 더러일가 ᄒᆞ노라
　　- 『진본 청구영언』

(다) 엄 행수야말로 이른바 더러움 속에 자기의 덕행을 파묻어 세상에 크게 숨은 사람일 것이다. 논어(論語)에 '소부귀(素富貴)하면 행호부귀(行乎富貴)하고 소빈천(素貧賤)하면 행호빈천(行乎貧賤)'이라 했는데 여기서 소(素)의 의미는 정할 정(定)자의 뜻이다. 시경(詩經)에는 '숙야재공(夙夜在公)은 식명부동(寔命不同)이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명(命)의 의미는 분수라는 뜻이다. 대저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 저마다 정해진 분수가 있어 명(命)을 타고 난 것이니 원망할 무엇이 있겠는가. 새우젓을 먹으면서 달걀이 생각나고 갈포(葛布) 옷을 입고서 모시옷을 부러워하면 천하가 이 때부터 대란(大亂)에 이를 것이고, 농민이 땅에서 들고 일어나면 농토가 황폐해질 것이다. 진승(陳勝) · 오광(吳廣) · 항적(項籍)과 같은 무리들은 그 뜻이 어찌 농사일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는가. 주역(周易)에 '부차승(負且乘)이면 치구지(致寇至)'라고 한 것도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것이 아니면 만종(萬鍾)의 녹봉도 불결한 것이며 정당한 노력이 없이 치부한 것이라면 비록 큰 부자가 되더라도 그 이름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이 죽어 돌아갈 때 구슬을 머금게 하는 것은 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엄 행수는 똥을 져서 밥을 먹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하겠으나 그가 밥벌이하는 일의 내용을 따져 보자면 지극히 향기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몸가짐은 더럽기 짝이 없지만 의로움을 지키는 자세는 가장 꿋꿋하다. 그러한 뜻을 확대해 나간다면 비록 만종의 녹봉을 받게 되더라도 지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깨끗한 가운데 불결한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청결한 것이 있는 것이다.

　　- 박지원(朴趾源),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에서

27. (가)와 (나)의 화자가 사상(事象)을 인식하는 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2점)

• 차이점

• 공통점

28. (다)의 화자는 인용법(引用法)을 자주 쓰고 있다. 이 수사법(修辭法)의 활용이 '작품 내의 청자 또는 당대의 독자'와 '오늘날 (다)의 독자'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를 구별하여 서술하시오. (2점)

• 작품 내의 청자 또는 당대의 독자에게 미쳤을 효과

• 오늘날 독자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

수험번호 : (　　)　　성　명 : (　　)

○　　○　　○　　○

29. (가)와 (나)의 화자가 서로 논쟁하는 상황을 가상(假想)할 때, (다)의 화자가 (가), (나)의 화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며 어떤 주장을 할지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4점)

【30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가) 명서 : 왜 그러슈? 어디서 무슨 기별이 있었소?
구장 : (손에 가졌던 헌 신문지를 보이며) 이 신문에 난 이 사진을 좀…….
명서 처 : 이거유?
구장 : 아니, 이것 말이어.
명서 : 눈이 어두워서 어디 잘 뵈야지. 얘 금녀야, 이리 와서 좀…….
금녀 : (사진을 자세히 뜯어보더니 그 얼굴에 불안의 빛이 감돈다.)
구장 : 너 오래비 명수 같지 않니?
명서 처 : 명수?
금녀 : 이상해유, 어머니.
구장 : 나두 처음에 무심히 보곤 이상하게 생각했어. 아무리 봐두 비슷한 데가 있단 말야. 그래, 다시 뜯어보니까 여기에 또 최명수란 이름 석 자가…….
명서 : 어디?
구장 : 이걸 보게.
금녀 : (보고는) 이게 언제 신문이에유?
구장 : 모르지, 언제 건지. 읍에서 고무신 싸 가지구 온 건데. 뒤지 헐려구 뒷간에 가지고 갔다가 우연히 이걸 봤어. (하면서 날짜를 신문지에서 찾는다.) …… 옳아.
명서 처 : 어찌된 일이에유?
구장 : 재작년 섣달부터 소식이 없었다지. 이 신문이 바로…….
명서 : 무슨 사연이유? 이 신문에 쓰인 건?
구장 : 그게 또 이상허단 말야.
명서 처 : 얼른 좀 들려 주세유, 구장 영감.

(나) 구장 : 쉽게 말허문 이 내용이란 건 대판(大阪)서 노가다 패에서 일하는 최명수란 자가…….
명서 처 : 노가다 패라니요?
구장 : 그걸 몰라? 산에서 굴 파 먹고 남포질해서 돌 떼는 놈들 말야.
명서 : 그래서?
구장 : 그래, 그 철없는 명수란 자가 노가다 패에서 몇몇 동무 눔들허구 남몰래 해방 운동인가 뭘 했다가.
명서 처 : 해방이라니 그 무슨 말이유?
명서 : 오오, 남의 일허는 데 훼방을 놓았단 말이겠지, 그렇쥬? 구장 영감.
구장 : 훼방이 아니라 해방이야. 해……방……운……동……, 명서두 모르는구먼.
명서 : 모르겠는데유.
구장 : 헹, 말씀 아니군. 우리네 백성이 이처럼 무식해서야 될 수 있나. 대체 해방 운동이란 건…… 음…… 저 뭐라더라, 옳지, 이를테면 보천교와 같은 거야.
명서 처 : 훔치기교?
구장 : 그렇지, 그런 걸 해 먹다가 그만 탄로가 났단 말야. 그래, 경찰에 붙잡혀서 예심에 붙었다는 거야.
- 유치진, '토막'에서

30. (가)에서 '구장'이라는 인물과 '신문'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 텍스트가 배우들이 관객과 호흡하는 연극이 아니라 일상의 의사소통 맥락에서 이루어진 담화라고 할 때, '명서네'와 '구장', '신문'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4점)

• '구장'과 '신문'의 역할

•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명서네'와 '구장', '신문'의 역할

31. (나)의 등장인물들 사이의 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언어적 표현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점)

- 수고하셨습니다 -